양계분야 필요한 부분 중점지원

– 육계 시설개선, 채란계 계분처리–

본고는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각 도 · 시 · 군 등 지자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축산관련 공무원을 찾아 매월 릴레이 형식으로 탐방을 통해 지자체의 활동은 물론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달은 충남 아산의 축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영 축산과장을 만나 아산시의 활동상황 및 양계정책 방안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

▲ 아산시 축산 총 책임을 맡은 김동영 과장

온천 휴양도시 아산

아산시(시장 강희복)는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된 도농복합도시로서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과 신정호, 아산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온천휴양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최첨단 LCD산업클러스터인 탕정크리스탈밸리, 자동차산업의 신 성장 동력과 중부권 최대 신도시인 아산신도시 조성 등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활기찬 도시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구국의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얼이 서려있는 현충사, 청백리의 대명사인 고불 맹사성 고택 등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유서 깊은 역사 도시이기도 하다.

아산시는 금년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3회 한국지

▲ 충남 아산시 시민로에 위치한 아산시청 전경

방자치경영대상에서 아산시가 영예의 종합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경사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아산시 인구는 21만7천명으로 충남 전체 200만명 중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계산업은 전체 222농가에 395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축산업 발전에 앞장

아산시의 축산업을 총 책임지고 있는 김동영(50) 과장은 아산 출신으로 학교 졸업 후 1981년 청양 농업기술센터에 입사하면서 농업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후 1982년 고향인 아산 농업기술센터로 자리를 옮긴 후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1995년 축산계장으로 승진하면서 본격적인 축산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축산업 현장을 돌아다니며 농가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함께 체험하면서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결국 2004년 아산시 농정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아산시 전체적인 축산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농가들의 여론에 의해 축산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7년 2월 26일 축산과가 생기면서 김동영 과장이 책임을 맡으면서 농가에 대한 지원 폭이 더욱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시에서 축산업에 지원된 금액이 약 29억 정도 되었으나 김과장의 노력이 반영되면서 금년에는 약 50억 정도가 책정되어 축산업에 많은 지원책을 쓰고 있다. 김과장은 축산단체협의회가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개최될 때면 언제든지 참석하여 농가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 금년 중에는 생산자 단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건물을 시(市) 차원에서 지원해줄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시설개선 등 적극 지원

김동영 과장은 양계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시청에 부임한 이후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육계분야는 시설이 열악하고, 채란계 분야에서는 계분처리가 가장 당면 현안으로 꼽히고 이다. 따라서 육계분야에는 자동화 등 시설개선에 지원을 늘려가고 있으며, 산란계 분야에는 계분처리 및 냄새제거 등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아산시에서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 안개분무시설, 미생물발효제, 단열처리시설, 니플설치(육계), 스키로더 지원, 감보로 백신지원, 깔짚 등 다양하다. 주로 열악한 시설개선과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앞으로 양계산업이 전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육계 환풍기 시설은 양계협회 회원의 97%에 지원이 되는 등 금년 여름 큰 문제없이 혹서기를 지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김동영 과장은 고유가시대, 고사료 시대를 맞이하여 농가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밀려들어 오고 있다. 축산인(양계인)의 편에 서서 최대한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것이 김과장의 지론인 만큼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싶어 한다. 금년 하반기에는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사체처리기, 농장에 필요한 소독, 청소기인 일명 SS기의 지원 등을 충분히 검토,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소비홍보 활동에 앞장

김과장은 최근 계란소비가 체화되어 농가의 시름이 깊었던 지난 달 초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판매를 주선 하는 등 농가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비록 큰 도움은 안되지만 조그만 일이라도 농가를 돕고 싶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김과장은 지난 4월 AI로 전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시에서 홍보비를 지원하여 수차례 소비홍보활동을 통하여 양계인들에게 힘을 보태주었다.

김동영 과장은 아산양계협회 육계, 채란지부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감사함을 표시했다. 특히 이일용 육계지부장, 차진우 산란계 지부장의 리더십을 통해 회원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AI 더 이상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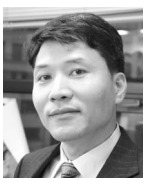
아산에는 지난 2004년 2월과 2006년 12월 탕정면 갈산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

▲ AI발생 당시 양계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왼쪽부터 김동영 과장(세번째), 이일용 육계지부장(다섯번째), 차진우 채란지부장(마지막))

루엔자가 발생된 바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같은 농장에서 2년만에 재발한 것이다. 2006년 두 번째 발생했을 때 방역활동을 벌이던 시청 공무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상황을 경험하기까지 하였다.

아산시는 금년 4월에 AI가 발생하면서 과거의 일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다. 지난 2006/07년 AI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18개 초소를 운영할 정도로 농가는 물론 시청 공무원, 군, 경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밤잠을 못자면서 방역을 벌였던 일이 생생하다. 금년에도 인근 평택에 AI가 발생했을 때 입구의 주요 도로변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자체 차단에 노력하였으며, 만의하나 아산에 AI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감안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다. 금년 아산에 문제없이 넘어갔던 것도 철저한 차단방역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과장은 충남도에서 시 · 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아산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만큼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축산물' 이라는 먹을거리 위주의 잔치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동분서주 축산의 대변자로 양계산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김과장은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양계인들이 더욱 결집하여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랬다.



✣ 다음호 : 충북도청 축산과 취재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